

2016 불갑산 상사화축제
9월 16~18일

꽃길따라 걷는 사랑여행...가을 추억 만드세요



옛날 한 마을에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오랜 기간 아이가 없었다.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끝에 늦게서야 예쁜 외동딸을 낳았는데, 아이는 얼굴이 곱고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다. 어느날 아버지가 원인 모를 병으로 돌아가시자, 효심 지극한 딸은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빌며 절에서 백일동안 탑돌이를 한다.

그리고 절에서 우연히 효심 깊은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스님은 가슴속 깊은 곳에 연정을 품게 된다. 하지만 귀의한 몸인 탓에 고백은커녕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강경 앉던 스님은 탑돌이를 마친 처녀가 돌아가자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만다.

이듬해 봄, 절 뒤편 산기슭 스님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풀쭉기가 올라오더니 잎이 나고, 잎이 말라 스러질 9월 무렵 꽃대가 올라와 한 송이 붉은 꽃송이를 내밀었다. 푸른 잎과 붉은 꽃이 함께 피지 못하고 번갈아 나는 모습에 사람들은 '상사화(相思花)'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란 꽃말을 품은 상사화의 전설이다.

영광군은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에서 오는 9월 16~18일 이 같은 슬픈 사랑 이야기를 품은 상사화를 주제로 2016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연다.



제16회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내달 16~18일 '천년의 영광 상사화를 품다!'를 주제로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한 관광객이 지난해 불갑사 일대에 만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를 걷고 있다. <영광군 제공>



◇상사화 축제 열리는 불갑사...사시사철 매력 가득 = 불갑사는 범성포를 통해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인도승 마라난타 존자가 최초로 세운 절로 알려져 있다.

봄에는 불갑사 가는 길에 화려하게 핀 벚꽃길, 여름에는 붉은 꽃잎 휘날리는 배롱나무꽃길, 가을에는 불갑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상사화와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꽃이 진 후 피어난 푸릇푸릇한 상사화 잎과 대비를 이루는 하얀 눈이 쌓인 풍경이 일품이다. 계절마다 전혀 다른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불갑사는 영광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절경을 간직한 관광 명소다.

불갑산은 특히 식성이 풍부해 사시사철 아름다운 야생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는 곳으로, 특히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재된 상사화속 식물 중 7월 중순부터 피어나는 멸종위기식물 2급 진노랑상사화와 붉노랑상사화가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군락지를 자랑하는 석산화(꽃무릇)는 매년 9월이면 불갑산 전체를 붉은 용단으로 갈아놓는 듯 붉게 물들여 장관을 이룬다.

상사화는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식물로 꽃과 잎이 서로 달리 피고 지는 모습이 인간 세계에서 서로 떨어져 사모하는 정인의 모습과 같다고 해 붙여진 고유 이름이다.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꽃'으로 '잎은 꽃을, 꽃은 잎을 서로 그리워한다'는 애절한 사연도 담고 있다. 영광군은

애절한 사랑이야기 간직한
대한민국 대표 가을축제

공연·전시·문화행사 등 풍성
향수 만들고 한지공예 체험도

용단처럼 깔린 붉은 물결 장관
추석연휴 이들이 낭만 한아름

이 같은 생태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해 매년 상사화 개화시기에 맞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가을 대표 꽃 축제 = 올해로 16회를 맞는 불갑산 상사화축제는 '천년의 영광 상사화를 품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영광군은 상사화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근 이준근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계획과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상사화축제는 16일 오후 7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사화 관련 전시와 체험·문화행사(상사화예술제, 상사화 시, 수필 공모전 등)는 내달 9일부터 운영한다.



올해 축제의 주요 행사는 상사화를 테마로 한 공연과 체험, 문화, 전시 행사 등 총 49종으로, 추석절 연휴와 축제기간이 겹침에 따라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영광군은 상사화 향수 만들기 와 한지공예, 나만의 컵 만들기 등 상사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상사화 히든상어, 상사화연극 등 공연행사 등을 준비중이다.

◇진입로 ~ 불갑사 3km 붉은 상사화 군락지 백미=무엇보다도 상사화 축제의 백미는



불갑사 가을 풍경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프로그램을 즐기며, 진입로부터 불갑사까지 3km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상사화 군락지를 감상하는 것이다. 특히 붉은 용단자를 깔아 놓은 듯 한 상사화는 절정의 볼거리를 선사하게 할 정도의 강렬한 색감을 자랑한다.

등산로 주변 곳곳에 피어오르는 꽃무릇도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등 가을날 꽃의 파노라마를 방문객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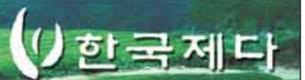
영광군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전년 대비 677면이 많은 4277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 축제에서는 청보리 한우와 보리를 포크, 굴비, 모싯잎 송편 등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강화해 지역민의 수익창출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인 불갑산상사화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 축제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리는 만큼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연영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여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